

한국 고대 木簡 및 金石文에 보이는 固有漢字의 양상과 구성 원리*

윤 선 태**

국문초록

漢字를 수용 학습했던 한국 고대사회에서는 한자 형성의 여섯 가지 원리, 즉 六書를 이해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기존 한자의 뜻을 조합해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會意字 방식이 고유한자 생성에서 가장 일찍 등장하고, 가장 일반화된 구성 원리로 확인된다. 우리 최초의 고유한자 사례인 ‘창고 棟’자도 會意의 원리로 만들어졌다고 생각된다. 삼국통일 이후 신라에서는 한자문화의 성숙과정에서 더욱 많은 고유한자들이 생성된다. 그 한 축은 최초의 ‘棟’과 같은 ‘逆’, ‘槁’, ‘鑑’ 등 會意字의 증가이며, 다른 한 축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文書行政의 발달과 궤를 같이하여 合字의 書寫慣行에서 생성된 ‘𪛗’, ‘𪛘’, ‘𪛙’ 등과 같은 고유한자들이다. 이를 통해 한국 고대 고유한자의 대부분은 會意와 合字의 원리로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會意字의 부류들은 글자의 각 변을 구성하는 두 글자가 상용어휘가 아니며, 의도적으로 글자들을 선택하여 조합했거나 글자의 일부 획을 없애는 등의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생성된 시기의 문화적 기초가 사라지면 그 글자 역시 생명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을 강하게 띠었다. 지명에 쓰였던 𪛗로 ‘逆’는 고유명사 속에서 예외적으로 생명을 이어갔지만, 나머지 글자들 특히 ‘棟’, ‘鑑’처럼 중국 한자에서 똑같은 자형이 다른 뜻으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글자들은 그 쓰임새가 지속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고대나 고려를 하한으로 글자로서의 생명력이 소진되었다.

한편 合字란 “연속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한자를 수직이나 수평 방향으로 한 글자처럼 합쳐 쓴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𪛘’자는 ‘水+田’을 합한 글자라는 점에서 會意字의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앞의 棟, 逆, 槁, 鑑 등의 부류들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상용어휘의 합자에서 훈과 음을 가진 완벽한 한 글자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또 문자 속에 두 글자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글자의 생명력도 끊어지지 않고 현재까지 지속되었다.

끝으로 월성해자 출토 <목간17호>에서 확인되는 ‘𪛙’자를 묵서 내용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이 ‘𪛙’자가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사용되었던 ‘새길 섬(석)’의 뜻을 지닌 고유한자이며, 그 생성 시점이 6세기~7세기 전 반의 신라로 소급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 이 글자의 ‘口’는 새기다, 쪼다(啄)의 뜻을 가진 의미부이며, 禾는 의미와 관계없이 아로새긴다는 뜻에 해당되는 우리 고유의 음만을 표현하기 위해 결합시킨 形聲字가 아닐까 제안해보았다.

[주제어] 固有漢字, 木簡, 六書, 會意字, 合字, 文書行政, 形聲字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6A3A01055801)

** 동국대학교 - 서울,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 yoonst@dongguk.edu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合字慣行과 畵, 畵, 石, 使 |
| II. 棕과 稂의 관계 | V. 畵의 의미와 그 구성 원리 |
| III. 辻, 槎, 鎰과 會意字의 증가 | VI. 맺음말 |

I. 머리말

한국의 ‘固有漢字’란 쉽게 정의하면 ‘전통시대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漢字’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한자와 자형은 같지만, 그 음이나 훈이 달라진 것도 고유한자에 포함 되는가 등 그 범위를 둘러싸고 연구자들마다 현재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¹⁾ 고유한자의 정의나 범위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생성된 한자와 字形, 字音, 字意 가운데 어느 하나 이상이 중국의 그것과 차이가 나면 고유한자라고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²⁾ 고유한자의 범위를 가장 넓게 잡은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연구자는 이 각각을 구분하여 國字, 國音字, 國意字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³⁾ 한편 이를 韓國字라는 큰 범주 하에 韓訓字, 韓音字, 韓製字, 韓半字로 구분하기도 한다.⁴⁾

그런데 이렇게 고유한자를 정의하게 되면 우리말의 어간·어미나 어휘 등을 표현하기 위해, 활용된 吏讀의 借字表記도 국음자와 국의자의 범주에 들기 때문에 이들도 모두 고유한자로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신라에서 ‘刀’라는 한자는 중국과 달리 부피의 단위인 ‘되(升)’의 뜻으로도, 또 ‘金’은 ‘쇠(열쇠)’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다.⁵⁾ 이 경우 중국의 한자와 자형은 같지만 자음과 자의가 달라 고유한자의 범주에 들게 된다. 그러나 이는 신라가 중국 한자의 ‘假借’ 원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기존 한자의 훈과 음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어휘를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새롭게 한자를 만들어 사용한 것은 분명 아니다.⁶⁾ 이런 국음자와 국의자는 고유한자라는 명명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종래의 국음자, 국의자를 제외하고 국자, 즉 중국 한자와 ‘字形’에 차이가 있고 전통시대 한국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한자만을 한국의 고유한자로 범주화하려고 한다. 다만, ‘國字’라는 용어는 사전에서 ‘한글(훈민정음)’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⁷⁾ 개념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서 필자는 기존

1) ‘한국고유한자’의 명칭과 분류에 관한 기존 연구사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허철, 「학술용어 관점에서 ‘한국고유한자’ 명칭과 분류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한자계문자’를 제안하며」, 『동양학』 75, 2019를 참고바람.

2) 남풍현, 「韓國의 固有漢字」, 『국어생활』 17, 1989, 96~109쪽.

3) 김중훈, 『韓國 固有漢字 研究』(개정증보판), 집문당, 1983.

4) 이승재, 『木簡에 기록된 古代 韓國語』, 일조각, 305~342쪽, 2017.

5) 윤선태, 「안압지 출토 ‘門號木簡’과 신라 동궁의 경비」, 『신라문화연구』 창간호, 2007.

6) 口訣字는 결획이나 초서 등을 활용한 자형의 변화가 분명히 확인되나 이는 애초에 차자표기에 기초하여 자형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고유한자의 범주에 넣지 않는다.

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자.

의 ‘고유한자’라는 용어를 국자의 뜻으로만 한정해서 狹義로 사용하려 한다.

본고의 고유한자 범위 속에는 ‘太(콩 태)’자와 같이 중국 한자에 같은 자형의 글자가 있지만 생성 과정과 구성 원리가 다른 글자는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콩 太’는 애초 중국 한자인 太의 음이나 훈을 빌려와서 만들어진 글자가 아니다. 이미 조선시대에 밝혀진 것이지만,⁸⁾ 大豆 두 글자를 縱으로 合字하여 붙여 압축적으로 서사하던 관행에서 점차 大豆 안에 豆의 첫 획인 ‘丶(一)’만을 남기고 나머지 아래 획들을 생략해갔던 합서와 결획의 과정을 거쳐 생성된 글자이다.⁹⁾ 물론 ‘콩 태(太)’는 한자 太의 음가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합자 결획하여 최종 하나의 글자로 탄생되는 과정에 기존의 한자 ‘太’의 자형이 의식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글자가 같아진 것이지 애초에 太자를 빌려와 우리말 콩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에서 고유한자로 분류한 글자로는 ‘창고 棕’자나, ‘자물쇠 鑰’자 등이 더 있다. 이 글자들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한편 연구자에 따라서는 고유한자를 한국에서만 사용하고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글자로 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글자 생성의 시간적 선후가 명확한 글자들, 즉 한국에서 생성되어 일본에까지 전파된 한자들은 한국의 고유한자에서 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한국의 고유한자를 일본이 수용하여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면 그것은 애초 한국에서 생성된 한자의 구성 원리가 국제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필자는 한국 ‘고유한자’도 한자의 전파와 수용이라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여 보고자 한다. ‘고유한자’ 역시 그것을 ‘한자’로 명명하였다는 점에서 중국 한자의 하위 범주로 바라보아야 한다. 후술하지만 한국 고유한자의 생성 과정 역시 중국 한자의 자형이나 한자의 구성 원리 등을 의식하고, 그 학습을 거쳐 새롭게 변용된 세계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한국의 고유한자는 생성 당시 우리의 문화적, 언어적 특수성이 작용해 탄생한 것이 분명하지만, 대체로 우리 고유한자의 생성과정도 『說文解字』에서 정리된 한자의 ‘六書’ 원리를 준용하여 만들어졌다. 특히 대부분 會意, 形聲의 원리가 적용되어 한국의 고유한자가 만들어졌다.

이 글에서는 한국 고유한자의 생성과정과 그 구성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 고대의 木簡과 金石文 등 當代 1차 사료에서 고유한자를 추출하고 그 양상에 주목하여 보았다. 우선 한국 고대 고유한자 중 현재로는 最古의 글자인 ‘棕’자를 분석하였다. 또 이 글자가 여말선초기에 사용된 ‘棕’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검토하였다. 삼국통일 이후 신라에서는 한자문화의 성숙과정에서 더욱 많은 고유한자들이 생성된다. 그 한 축은 최초의 棕과 같은 遄, 槎, 鑰 등 會意字의 증가이며, 다른 한 축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문서행정의 발달과 궤를 같이하여 合字의 書寫慣行에서 생성된 使, 奮, 畠, 仁 등과 같은 고유한자들이다. 이를 통해 한국 고유한자의 대부분은 會意와 合字의 원리로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월성해자 출토 목간에서 확인되는 ‘𪛗’자를 그 목간의 목서에 대한 판독과 해석을 통해 이 글자 역시 고유한자임을 밝혔고, 그 구성 원리도 새롭게 이해하여 보았다. 물론 이 ‘𪛗’자는 고려시대부터는 그 사용례가 명확히 확인되는데, 본고에서는 그 생성 시점이 삼국시대로 소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諸賢의 叱正을 바란다.

8) 黃胤錫, 『頭齋亂稿』; 남풍현, 앞의 논문, 1989, 10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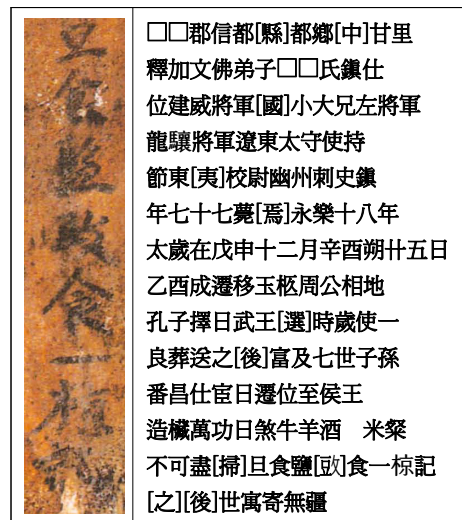
9) 권인한, 「합자와 국자」, 『문자와 한국고대1 - 기록과 지배』(주보돈교수 정년기념논총), 주류성, 2019.

II. 椋과 椋의 관계

‘椋’자는 408년에 만들어진 북한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역의 덕흥리(舊 江西邑)에 위치한 고구려 벽화고분인 〈德興里鎭墓〉의 墨書 자료에서 최초로 확인된다. 이 ‘椋’자는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한국 고유한자 중 생성 시기가 가장 올라가는 글자이다. 덕흥리진묘에는 墓主의 墓誌 외에 벽화를 설명하는 傍題의 묵서 등 전체 56개소 600여자에 달하는 문자가 쓰여 있다. 문제의 ‘椋’자는 전실에서 후실로 들어가는 통로 입구(전실 북벽) 위에 가로 50cm 세로 22cm 정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14행 154자를 縱書해 쓴 묘주의 묘지 중 마지막 대목에 나온다.¹⁰⁾

〈그림 1〉로 알 수 있듯이,¹¹⁾ 사실 ‘椋’자는 자형만으로 보면 중국 한자에도 있는 글자이다. 그러나 해당 구절의 문맥으로 볼 때, 이 글자가 중국 『爾雅』와 『說文解字』에 보이는 느릅나무과의 활엽 교목인 ‘푸조나무 랑(椋)’자의 뜻으로는 사용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묘지의 ‘椋’자가 있는 구절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였듯이 “아침으로 먹을 소금과 된장이 한 창고나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椋’자가 木변이 없는 ‘창고 京’자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 글자임을 알 수 있다.¹²⁾

이 무덤의 주인공인 유주자사 鎭의 국적에 관하여 논란이 없지 않으나, 묘지에 등장하는 ‘永樂’이라는 고구려 광개토왕의 연호, ‘國小大兄’이나 묵서 傍題 중의 ‘中裏都督’ 등 고구려 고유의 관등과 관명 등에 비추어 볼 때, 묘주는 중국에서 고구려로 망명해온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무덤 축조를 비롯해 벽화나 묵서의 작성은 고구려 당대의 문화가 바탕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³⁾ 특히 357년경에 축조된 중국에서 망명해온 冬壽의 무덤인 〈안악3호분〉의 동측실 동벽의 ‘창고’를 그린 벽화에 朱書된 傍題에 ‘京屋’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본다면,¹⁴⁾ 덕흥리진묘의 ‘椋’자는 고구려에서 만들었던 고유한자임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늦어도 두 무덤 사이인 4세기 후반 경에는 고구려 사회에서 창고를 뜻하는 글자로 ‘京’자 대신에 ‘椋’자를 새롭게 만들어



〈그림 1〉 德興里鎭墓誌 ‘椋’

10) 鄭燦永, 「德興里壁畫古墳の文字について」, 『德興里高句麗壁畫古墳』, 講談社, 1986.

11) 『高句麗古墳壁畫』, 朝鮮畫報社, 1985, 그림59 묘지명 덕흥리벽화무덤(408년); 권인한, 앞의 논문, 2019, 238쪽.

12) 서영대, 「덕흥리고분 묵서명」, 『역주한국고대금석문1』,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77쪽.

13) 서영대, 위의 책, 81쪽.

14)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안악 제3호분 발굴보고』, 과학원출판사, 1958; 서영대, 「안악3호분 묵서명」, 『역주한국고대금석문1』,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56쪽.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棕자의 생성과 관련하여 『三國志』 魏書 東夷 高句麗傳 보이는 ‘桴京’이라는 어휘에 유념한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구려에는 큰 창고는 없는 대신 집집마다 작은 마루창고인 ‘부경’이 있었음이 『三國志』에 전하고 있다, 본래 곡물을 보관하던 ‘창고’를 의미하였던 ‘京’자가 ‘서울(수도, 도읍)’을 의미하는 글자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고구려에서도 자국의 마루창고를 의미하는 뜻으로 京자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4세기 이후 ‘京’자를 창고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 대신, 고구려인들은 자국의 ‘桴京’을 표기할 차별성 있는 글자로써, ‘京’자에 ‘桴’자의 ‘木’변을 합쳐 마침내 ‘棕’자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¹⁵⁾ 이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추론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2〉 부여 능산리 백제목간 6세기 중반

〈그림 3〉 부여 쌍북리 280-5 목간 7세기 초반?

〈그림 4〉 경주 황남동 376 신라목간 8세기

〈그림 5〉 경주 월지 출토 ‘棕司’ 목서 벼루 8-9세기

〈그림 6〉 일본 西河原森ノ内 2호 목간 7세기 후반

이 ‘棕’자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이후 백제 및 신라사회에도 수용되어 널리 사용되었다.¹⁶⁾ 6세기 중반 유적인 충남 부여 능산리사지 및 7세기 부여 쌍북리 280-5번지 등에서 출토된 백제목간들(〈그림 2와 3〉 참조)을 비롯해, 경주 황남동 376번지 유적 출토 신라목간(〈그림 4〉 참조)과 통일신라 유적인 월지(안압지) 출토 벼루 뒷면의 목서(〈그림 5〉 참조) 등 삼국시대의 다양한 자료에서 공히 ‘창고’의 뜻으로 사용된 ‘棕’자의 사례가 확인된다. 또 이 棕자는 고대 일본에서도 수용하여 역시 ‘마루창고’라는 뜻으로 사용하였다(〈그림 6〉 참조). 삼국시대 신라가 5세기에 고구려 문자문화에 큰 영향을 받았던 사실 등으로 볼 때 - 현재 1차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 신라도 이 ‘棕’자를 통일 이전부터 이미 수용하여 사용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

15) 李成市, 『古代朝鮮の文字文化』, 『古代日本 文字の來た道』, 國立歷史民俗博物館, 2005.

16) 棕자에 관한 그림자료들은 권인한, 앞의 논문, 2019, 239~240쪽에 잘 정리되어 있어, 본고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제시하였다.

각된다.¹⁷⁾

한편 이 ‘椶’자의 음과 관련하여 조선시대의 고유한자인 ‘椶’자가 주목된다. 이 글자 역시 ‘창고’의 뜻이며 音價는 조선시대 후기에는 ‘수’나 ‘숙’ 등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수(숙)’ 등의 음은 『訓蒙字會』에 ‘벼 禾’를 ‘쉬 禾’로 혼독하고 있었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椶자의 원초적인 발음도 ‘쉬’였던 것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다.¹⁸⁾ 그런데 ‘椶’자와 관련하여 유념해야 될 것은 창고를 뜻하는 고구려 때 만들어진 고유한자인 椶자는 ‘木’변인데, 조선시대의 고유한자인 椶자는 ‘禾’변으로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두 글자는 생성과정이 서로 다른 글자일까 아니면 연관성이 있을까?

마루창고라는 뜻으로 사용된 椶자의 자료적 하한을 추적해보면, 필자의 管見이지만 고려시대 1230년 무렵에 만들어진 「修禪寺形止案」에 보이는 ‘鎬銅樓椶’이라는 표기가 1차 자료로는 가장 마지막이라고 생각된다.¹⁹⁾ 이 문서의 원본 사진을 살펴보면 명확히 ‘木’변의 ‘椶’자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⁰⁾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가면 창고라는 뜻으로는 필자의 寡聞일수도 있지만 椶자는 현재 하나도 확인되지 않으며, 모두 ‘禾’변의 ‘椶’자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시점이나 원인과 관련하여 「大安寺形止案」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대안사형지안」은 앞서 언급한 고려시대의 「수선사형지안」과 동일한 성격의 자료로 애초에는 1230년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그 원문서는 남아있지 않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안사형지안」은 조선시대에 원문서를 다시 채록 정리한 자료이다.²¹⁾ 이 「대안사형지안」에는 「수선사형지안」으로 볼 때 椶자로 써야 될 곳이 분명한데 ‘樓椶’처럼 ‘椶’자가 아닌 ‘禾’변의 ‘椶’자가 적혀 있다. 비록 「대안사형지안」에 ‘椶’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역시 창고의 세부 명칭이나 ‘(下)童足柱’라는 하부구조의 표현이 「수선사형지안」의 ‘樓椶’과 서로 같기 때문에,²²⁾ 「대안사형지안」의 애초 원문서에는 현재의 ‘椶’자가 ‘木’변의 ‘椶’자로 적혀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麗末鮮初 시기에 어떤 특별한 역사적 계기로 인해 창고라는 의미의 椶자는 사용되지 않고, 木변을 禾변으로 바꾼 椶자로만 표기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기를 한정해보는다면 1230년 이전까지는 ‘마루창고’의 뜻으로 椶자가 널리 사용되다가, 여말선초기에 이르러 椶자는 점차 사용되지 않게 되었고 그 대신 그 글자를 椶자로 바꾸어 대체해 사용했던 사례가 점점 증가해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 이런 글자상의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첫째, 椶자는 한자로 명확히 ‘푸조나무’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 후기에 들어서면서 한자문화의 성숙과 한자 사용 인구의 증가 속에서 점차 椶자를 마루창고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발생했을

17) 권인한, 앞의 논문, 2019, 239~240쪽.

18) 이건식, 「한국 고유한자 字形 構成 方法 연구 二題」, 『동아시아 고유한자와 사전편찬』, 단국대학교출판부, 2014, 38~54쪽.

19) 노명호·박영제·박재우·오영선·윤경진·윤선태·최연식·이종서, 「修禪寺形止案」,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상)』,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375쪽.

20) 「修禪寺形止案」의 원문서 사진은 노명호·박재우·오영선·윤경진·윤선태·최연식·이종서,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하)』, 서울대학교출판부, 82쪽을 참조바람.

21) 노명호 외, 앞의 책(상), 419쪽.

22) 노명호 외, 위의 책, 422쪽.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푸조나무 棕(양)’과 ‘곡물창고 棕’처럼 서로 다른 훈을 자형이 완전히 같은 글자로 쓰게 되면서 문자 생활과 의사전달에 애매모호함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棕자는 마루창고의 재질이 나무라는 점이 부각된 글자이지만, 언젠가 곡물인 ‘쉬(禾)’를 보관하던 창고라는 사실로 인해 ‘쉬’가 곡물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곡물창고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고, 棕자의 음가도 ‘쉬’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²³⁾ 이로 인해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라는 뜻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禾변의 ‘棕’자가 생성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棕’자의 탄생으로 기존의 棕은 더 이상 창고의 뜻으로 사용되지 않고 ‘푸조나무’의 뜻으로만 한정되어 사용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Ⅲ. 遼, 槎, 鎰과 會意字의 증가

앞서 검토한 棕자의 구성 원리를 살펴보면 桴에서 ‘나무(木)’을 취하고 거기에 ‘창고’를 뜻하는 京이라는 두 글자를 모아 만든, 즉 중국의 六書 중 ‘會意’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로 분류할 수 있다. 會意字란 글자의 뜻(意)을 모아(會) 하나의 글자로 만든 한자이다. 예를 들어, ‘日+月’을 통해 만들어진 ‘明’이 대표적이며, ‘老’에서 匕를 빼고 子를 결합해 만든 ‘孝’도 會意字에 포함된다. 棕자는 ‘桴京’이라는 고구려적인 생성 과정이 있었지만, 이 글자가 백제, 신라, 고대일본으로도 전파되어 널리 사용되었던 것은 이들 나라들도 고구려와 유사한 ‘나무로 만든 마루창고’를 사용하고 있었고, 또 棕자가 그러한 의미를 담은 글자이면서, 한자의 보편적 구성 원리인 ‘會意’를 자형에 잘 체현하여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수용 학습했던 한국 고대사회에서는 기존 한자의 뜻을 조합해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會意字 방식이 고유한자 생성에서 가장 일찍 등장하고, 가장 일반화된 구성 원리였다고 생각된다. 이로 인해 한자에 익숙해질수록 점점 會意의 원리를 적용해 만든 고유한자들도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會意의 원리로 만들어진 고유한자들이 통일 이후 신라에서 더욱 증가하였다.

우선 첫째로, 월지(안압지)에서 출토된 소위 ‘門號木簡’에는 중국 한자에 보이지 않는 고유한자인 ‘遼’자가 확인된다.²⁴⁾ 이 글자의 의미나 구성 원리에 대해서는 ‘辺+守’라는 변경을 지킨다는 글자의 조합에서 온 會意字라는 견해가 이미 제기된 바 있다.²⁵⁾

한편 ‘遼城’(강원도 高城)처럼 『三國史記』 지리지에 전해지는 고구려계 지명에도 이 ‘遼’자가 사용되고 있어, 이 글자는 애초 고구려에서 생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1차 자료에서는 현재 월지 출토 신라 문호목간

23) 이진식, 앞의 논문, 2014, 52~54쪽에서, 원래 ‘쉬’가 곡식의 뜻만 가졌으나 창고의 뜻을 흡수하게 되었고, 이를 표시하기 위해 禾에 京을 첨가한 글자가 생성되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추론과 달리 필자는 「수선사형지안」과 「대안사형지안」에 기초해 棕자와 棕자의 역사적 연속성에 주목하고, 애초 신라 또는 고려에서 ‘쉬(곡물)’를 저장했던 창고인 棕을 ‘쉬’라고 불렀고, 그로 인해 여말선초시기에 쉬 음가에 더욱 정합적인 고유한 자형인 棕자가 생성되었던 것이 아닌가 추론해본 것이다.

24) 李成市, 「韓國出土の木簡について」, 『木簡研究』 19, 日本木簡學會, 1997.

25) 이진식, 「고구려 지명 표기에 사용된 한국 고유한자의 의미와 자형 구성 방법」,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2.



〈그림 7〉 월지 출토 신라
문호목간의 ‘遼’

이 유일하다. ‘遼’자가 ‘辺+守’라는 뜻을 모은 會意字라고 할 때, 신라 문호목간에서의 ‘遼’자는 ‘변경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파생되어 문맥상 ‘경계(宮門)를 지키는 일이나 사람’으로까지 전용되어갔다고 생각된다. 종래 이 글자를 ‘문지기 遼’로 본 것도 이 때문이었다.²⁶⁾

이 외에도 695년에 작성된 「신라촌락문서」에도 회의자로 구성된 신라의 고유한자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촌락문서 각 촌의 서두에는, 예를 들어 A촌의 경우 ‘當縣沙害漸村見內山槥地周五千七百廿五步’처럼 각 촌의 지형과 크기(둘레)를 설명하는 부문이 나오는데(〈그림 8〉 참조), 이 중 ‘槥’자는 중국 한자에는 없는 신라의 고유한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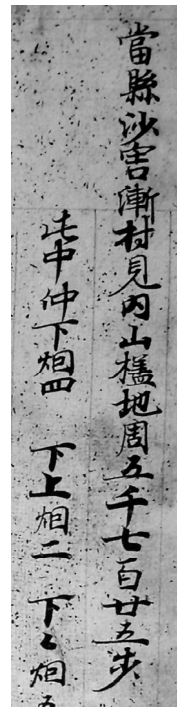
이 ‘槥’자의 뜻은 D촌의 ‘西原京□□村見內地周四千八百步’와 관련 구절을 비교해보면 쉽게 추론할 수 있다. A촌의 지형은 ‘山槥地’로 되어 있고, 반면에 D촌의 지형은 그냥 ‘地’로 되어 있다. D촌

은 서원경 인근이라는 점에서 ‘地’는 평지를 의미한다고 생각되며, 이에 비해 ‘山槥地’는 산지인데, 특히 ‘槥’자에 유념해보면 ‘나무(木)로 덮인(蓋)’ 산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이槥자는 椽자와 마찬가지로 會意의 원리로 구성된 고유한자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월지에서 출토된 신라 자물쇠의 銘文에도 고유한자가 확인된다. 자물쇠에는 공통적으로 ‘鑑’이 새겨져 있다. 이 ‘鑑’자는 중국 한자에는 그 뜻이 중량의 단위로 사용되었지만, 신라에서는 鑑자의 뜻이 중국과는 전혀 다른 ‘자물쇠’의 의미로 사용되었다.²⁷⁾ 이 글자는 고대 일본으로도 건너갔고, 고대 일본에서는 ‘자물쇠’를 비롯해 ‘열쇠’의 뜻으로도 이 ‘鑑’자를 사용하여, 그 의미가 더욱 확대되었다. 이 월지 자료들이 검토되기 전에는 자물쇠나 열쇠의 의미로 사용된 이 ‘鑑’자를 일본 고유의 한자로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월지 출토 신라 문자자료를 통해 이 글자의 연원이 애초 신라에 있었음이 분명해졌다.²⁸⁾

이 ‘鑑’자가 신라에서 ‘자물쇠’의 의미로 쓰였다는 점을 전제할 때, 이 글자의 구성 원리는 ‘쇠(金)+더하다(益)’라는 會意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라고 생각된다. ‘쇠를 더하다’는 것에서 ‘쇠를 聯關하다는’ 의미로 전용되어, 즉 ‘자물쇠’의 뜻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까지 검토한 椽, 遼, 槥, 鑑 등은 모두 그 구성 원리가 會意字로 판단된다. 다만 이 글자들을 포함해



〈그림 8〉 신라촌락문서 ‘槥’

26) 이문기, 「안압지 출토 목간으로 본 신라의 궁정업무-궁중잡역의 수행과 궁정경비 관련 목간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39, 2005.

27) 단국대 이진식 교수의 교시에 의하면, 『龍龕手鏡』에 ‘鑰’의 이체자 중의 하나로 鑰의 초서체에서 온 ‘鑑’이 확인된다고 한다. 추후 검토과제로 남기지만, 이것이 鑰의 이체자라면 鑑은 자물쇠를 뜻하는 신라의 고유한자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28) 이성시, 앞의 논문, 1997; 윤선태, 「안압지 출토 『門號木簡』과 신라 동궁의 경비」, 『신라문화연구』 창간호, 2007, 83~88쪽.



〈그림 9〉 월지 출토 자물쇠의
‘合零閭鑑’

〈그림 10〉
고대일본목간의
‘東殿門鑑’

한국 고대사회에서 會意의 원리로 만들어진 고유한자들은 후대에 이어지지 않고 대부분 사라졌다. 지명에 쓰였던 𪛗으로 𪛗는 고유명사 속에서 예외적으로 생명을 이어간 흔적이 남았지만, 나머지 글자들 특히 𪛗, 鑑처럼 중국 한자에서 똑같은 자형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글자들은 그 쓰임새가 지속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고대나 고려를 하한으로 해서 대부분 글자로서의 생명력이 소진되었다고 판단된다.

IV. 合字慣行과 畐, 畠, 仁, 使

合字란 “연속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한자를 수직이나 수평 방향으로 한 글자처럼 합쳐 쓴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²⁹⁾ 예를 들어 ‘畐’자는 ‘水+田’을 합한 글자라는 점에서 會意字의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앞의 𪛗, 𪛗, 𪛗, 鑑 등의 부류들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畐은 水田이라는 어휘가 흔히 사용되었던 상용어였기 때문에 그것을 자주 書寫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두 글자를 붙여 압축적으로 한 글자처럼 합쳐해서 쓰는 서사 관행이 만들어졌다. 또 畐자는 ‘논/답’이라는 훈과 음이 현재에도 전하며, 조선시대에도 중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우리의 고유한자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水田이라는 상용어의 합자에서 한 글자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한 글자로 변해도 그 속에 두 글자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글자의 생명력도 끊어지지 않고 현재까지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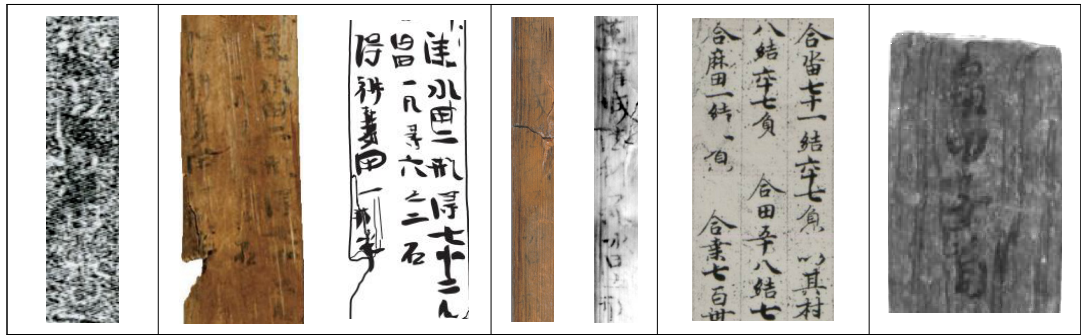
반대로 會意字의 부류들은 글자의 각 변을 구성하는 두 글자가 상용어휘가 아니며, 의도적으로 글자들을 선택하여 조합했거나 글자의 일부 획을 없애는 등의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생성된 시기의 문화적 기초가 사라지면 그 글자 역시 생명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을 강하게 띠게 된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이로 인해 한국 고대사회에서 생성된 會意字가 조선시대까지 계승되어 이어진 사례는 극히 적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독립적 상용어휘를 合字해쓰던 서사관행에서 생성된 고유한자들을, 會意字와 별도로 구분하여 ‘合字’의 원리로 범주를 달리하여 묶어보았다.

우선 첫 번째, 畐자는 현재로는 561년에 작성된 신라 「창녕진흥왕순수비」에서 최초로 확인되며, 통일 이후 「신라촌락문서」(695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³⁰⁾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610년경에 작성된 전남 나주 북암리 출토 백제 〈목간5호〉에는 ‘水田’은 합자하지 않고 오히려 白田을 합쳐해서 ‘畠’자로 적고 있어 특이하

29) 권인한, 앞의 논문, 2019, 215~216쪽.

30) 畐자에 관한 그림자료들은 권인한, 앞의 논문, 2019, 241쪽에 잘 정리되어 있어, 본고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제시하였다.

다.³¹⁾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신라 「창녕진흥왕순수비」에는 ‘白田’은 합자하지 않고, 오히려 水田을 합자하여 ‘畚’이라 적었다.³²⁾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

〈그림11〉 창녕진흥왕순수비(561) “海州白田畚”

〈그림12〉 나주북암리 백제목간 5호(610) “水田(1행) 畝(2행) 麥田(3행)”

〈그림13〉 부여궁남지 백제목간(7세기 전반) “水田(畚?)(2행 15~16자)”

〈그림14〉 신라촌락문서(695) C촌 “畚(8행 2자) 田(9행 7자) 麻田(10행 2~3자)”

〈그림15〉 일본 長屋王家 목간 ‘畝田子首’

‘白田’과 ‘水田’이라는 어휘는 애초 모두 중국에서 생성되었고,³³⁾ 신라와 백제에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白田’, ‘水田’이라는 어휘가 들어와 사용된 것은 앞서 소개한 사례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신라는 水田인 ‘畚’, 백제는 白田인 ‘畝’만 합자한 고유문자가 생성되었던 것일까? 양국의 문자생활에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되었는지 현재로는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앞서 거론한 나주 북암리 〈목간5호〉의 목서를 보면, ‘水田’은 2形の 면적에서 72석을 수확했는데, ‘畝’는 1形에서 62석을 수확하였다. 면적 대비 밭의 수확량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곡물의 차이가 있었겠지만, 백제에서 일찍이 낙랑·대방군을 통해 중국의 畝田農法이 전해져 밭농사 기술이 발전하여 농업에서 밭이 중핵적 위상을 지녔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즉 백제에서 白田이 차지하는 남다른 위상이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그것이 白田을 합자한 ‘畝’자가 생성되는 데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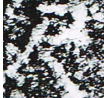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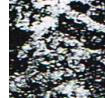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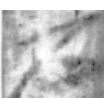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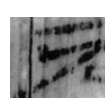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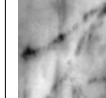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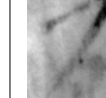
한편 신라에서는 ‘一石’이라는 부피 단위의 합자 서사관행이 石(한 섬)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내었다. 이로 인해 결국 ‘돌 石’과 구분하여 곡식의 계량단위인 ‘한섬 石’을 뜻하는 고유한자인 ‘石’이 탄생하였다. 아래 〈표 1〉은 신라의 官名·役名·一石의 습자 사례를 모아놓은 것이다.³⁴⁾ 〈표 1〉을 보면 신라에서는 一伐, 一

31) 이 목간의 목서 상태(〈그림 12〉 참조)로는 畝자가 아직 한 글자의 고유한자라기보다는 두 글자의 합자 정도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후 고대 일본에서 명확히 畝자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그림 15〉 참조), 畝자는 일단 백제에서 만들어진 고유한자로 추정하고자 한다. 후일 관련 자료의 증가를 기대해본다.

32) 권인한, 앞의 논문, 2019, 241~243쪽.

33) 『晉書』 권47, 傅玄傳, “白田收至十餘斛, 水田收數十斛.”

〈표 1〉 신라의 官名, 役名, 一石 合字의 사례

官名 · 役名 · 一石 · 合字	 一伐 명활B 4 551?	 一尺 남산4 8 591?	 大舍 남산3 4 591	 大舍 제2신라문서 8C 중엽?	 小舍 조로2년명 680	 乃末 제2신라문서 8C 중엽?	 功夫 정원명 7 798
	 一石 함안 7 6~7C	 一石 함안 11 6~7C	 一石 함안 16 6~7C	 一石 함안 29 6~7C	 一石 함안 31 6~7C	 一石 함안 32 6~7C	 一石 제2신라문서 8C 중엽?

尺 등 관명에서 一을 아래글자에 바짝 붙여 쓰는 합자의 서서관행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목간으로 알 수 있게 되었지만, 신라에서는 ‘一石’을 세금의 수취 단위로 많이 서사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로 인해 一石을 압축해서 ‘石’만으로 一石의 의미를 갖는 글자를 사용하였다. 즉 一石을 ‘一石’으로 썼는데, 이 두 글자를 아래위로 붙이면 石이 된다. 함안 성산산성 신라목간을 보면 당시로는 아직 ‘점(점)’을 ‘石’으로 표기하는 것이 통일되지 않아, 지역에 따라 어떤 곳은 一石으로 표기한 사례도 확인된다.

따라서 6세기 후반에는 아직 ‘점 石’의 고유한자가 생성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물론 이 이후 통일신라, 고려, 조선에서는 부피단위인 점은 ‘石’으로, 둘은 ‘石’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6세기 중반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유명한 백제 ‘支藥兒食米記’ 목간의 3면에도 이와 동일한 성격의 합자의 서서관행에서 만들어진 특이한 백제의 고유한자가 있어 주목된다.

‘支藥兒食米記’목간. 4면목간. (44)×2×2cm.

(3면) [食]△道使△次如逢 使猪耳其身者如黑也 道使復後 彈耶方 牟氏 牟△ △耶×

목서의 내용은 문맥상 “道使인 △次와 如逢, 使猪耳, 그 몸이 검은 것 같다. 道使인 復△, 彈耶方의 牟氏와 牟△, 그리고 △耶……(누구는 어때어떠하다)”로 끊어서 해석할 수 있다.³⁴⁾ 그런데 이 중 ‘使’라는 글자는 ㅅ변에 ㅁ틀 쓴 글자로

〈그림 16〉 백제
‘지약아식미기’ 목간 ‘使’

34) 〈표 1〉의 그림자료들은 권인한, 앞의 논문, 2019, 223~225쪽에 잘 정리되어 있어, 본고에서도 일부 발췌하여 그대로 제시하였다.

보이는데 중국 한자에는 없는 글자이다. 이로 인해 ‘ㅅ 변’을 削刀로 깎여나가지 않은 그 이전 글자의 의미 없는 묵훈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³⁶⁾ 3면 전체 묵서의 중심축선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愼’는 하나의 글자로 쓴 것이 분명하다.³⁷⁾

문맥상으로 보면 道使처럼 관명이 나올 자리라는 점에서 ㅅ 변이라고 본 필획을 유심히 보면 ‘작을 小’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愼’자는 道使 예하의 ‘小吏’라는 관명을 습字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후 愼를 夾註 형식으로 두 자를 쓴 것으로 볼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경우 협주의 관례대로 오른쪽에 小를 먼저 써야하기 때문에 ‘吏+小’의 형식이 되어야 한다. 또 小자를 ㅅ 변처럼 쓰지 않고 하나의 글자처럼 썼을 것이다. 결국 小자를 ㅅ 변처럼 썼다는 그 자체가 이 글자가 백제의 고유한자임을 역설하고 있다. 즉 이 글자는 ‘小吏’ 두 글자를 쓴 것이 아니다. 그 구절의 다른 글자들과 비교해볼 때 애초 ‘小吏’의 두 글자를 압축해서 새로운 하나의 한 글자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에서 일부러 좌우로 붙여 합자해 한 글자로 쓴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필자가 ‘愼’라는 글자를 小吏의 합자로 추정하는 이유는 관명을 합자해서 쓰는 사례가 이웃한 고구려와 신라의 경우에는 많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라의 경우 앞서의 <표 1>을 보면 1차 자료에 官名인 大舍(大+吉), 奈末(奈), 大等(奈)을 비롯해 役名인 功夫(일꾼) 등 두 글자로 된 관명이나 역명을 한 글자로 합자해 쓴 사례가 많이 전하고 있다. 신라는 글자를 주로 아래위로 붙이는 형식으로 새로운 글자가 생성되었지만, ‘愼’는 좌우로 합치는 방식인 점만 다르다.

신라가 아래위로 합자한 이유는 두 글자의 관명이 갖고 있는 공통된 한자의 획들과 관련이 있다. 이는 고구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1차 자료는 아니지만, 『翰苑』에는 唐의 陳大德이 641년 고구려를 직접 탐방하고 남긴 「高麗記」를 인용하고 있는데, 당시 고구려에서 관명인 ‘使者’를 ‘奢’로도 표현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奢’는 ‘사치할 奢’로 중국 한자에도 있지만, 「고려기」의 내용상 고구려에서는 ‘使者’라는 관명을 합자로 습서하던 관행에서 탄생하였던 새로운 고유한자로 기능하였다고 생각된다. 고구려의 奢는 아래위로 합자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신라와 유사하며, 공통점은 두 글자의 공통된 한자 획을 이용하여 압축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두 글자의 관명을 합자하여 새로운 글자들이 생성된 것은 당시 고대국가의 행정 관료들이 관명들을 문서에 상당히 많이 그것도 자주 書寫하게 되면서 그러한 글자들을 붙여 압축해서 서사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습서 관행 속에서 중복되는 획들이 사라지거나 윗글자의 획이 간략화 되거나, 아니면 윗글자의 여백 속으로 아래글자가 삽입되는 형태로 습서가 진행되고 이것이 점점 관례화되면서 서서히 새로운 고유한자가 창의적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남은 문제로는 백제는 왜 특이하게도 좌우로 합자한 ‘愼’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던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에서 ‘使者’를 ‘奢’로 표현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관명의 압축 습서 관행에서 탄생된 글자라도 기

35) 윤선태,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이야기』, 주류성, 2007, 139쪽.

36) 이병호, 「부여 능산리 출토 목간의 성격」, 『목간과 문자』 창간호, 2008.

37) 이승재, 앞의 책, 2017, 330쪽에서도 韓製字, 즉 고유한자로 보고 있다.

존의 한자를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역측해본다면 ‘愷’라는 글자는 그와 유사한 글자인 ‘使’와 관련되어 생성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백제에서 使는 道使처럼 관직명 등으로 많이 사용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小吏를 좌우로 합자하는 방식으로 ‘愷’라는 글자가 탄생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愷’의 뜻은 小吏이지만, 그 음가는 ‘소리’라는 두 음가로 표현되었을까? 아니면 하나의 음가, 즉 백제 고유 음가로 새롭게 불리어졌을까?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고유한자로서 ‘太’가 주목된다. 맨 먼저 검토하였지만, 太는 중국 한자이나 한국 고유한자로는 ‘콩 太’이다. 중국 한자 太에는 콩(大豆)이라는 뜻이 없다. 신라 이래로 大豆 두 글자를 아래위로 바짝 붙여 합자하여 쓰던 관행이 마침내 고려에 이르러 大豆를 太라는 형태의 글자로 축약한 자형의 고유한자가 탄생하게 된다. 이 글자가 太자와 자형이 똑같아서 이후 ‘콩 太’라는 훈과 음을 얻게 되었다.

백제에서 ‘小吏’를 좌우로 합자해 쓴 ‘愷’라는 글자가 하나의 음가로 불리었는지 그 여부는 현재로는 더 이상 추론할 수 없지만, 앞서 검토한 신라의 관명이었던 大等(奈), 奈末(奈) 등의 경우에는 각각 등(奈)과 말(奈)의 음가를 가지며 후대 조선시대까지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던 고유한자로 기능하였다. 이로 볼 때 백제의 ‘愷’라는 글자 역시 ‘小吏’라는 두 글자를 합자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지만, 당시에 이미 특정한 하나의 음가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은 ‘畵(논/답)’이라는 신라의 고유한자 역시 水와 田을 아래위로 붙여 만든 글자인데, 畵과 자형이 유사한 중국 한자의 ‘畵(답)’에서 음가를 취해 ‘논 답’이라는 훈과 음을 얻은 사례와 비교된다. 그러나 현재로는 고유한자 ‘愷’의 음가는 알 수 없으며, 오히려 신라에서 관등들이 많이 합자되었지만, 한 글자의 음가보다는 두 글자의 음가가 그대로 살아있었을 경우가 더 많았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愷’의 음가 역시 ‘소리(小吏)’였다고 생각된다.

V. 昧의 의미와 그 구성 원리

昧자는 중국 한자에도 있는 글자이다. 그 경우 昧자는 ‘和’의 古字로 서로 같은 글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고유한자에서 昧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고려시대 이후는 그 사례가 매우 많이 남아 있는데, 주로 ‘昧匠’처럼 ‘섭새김’하던 장인을 말할 때 사용된 고유한자이다. 섭새김이란 금은옥이나 띠돈 등에 누각, 투각 등으로 문양을 만드는 공예기법을 말한다.³⁸⁾

그런데 월성해자에서 출토된 신라 <목간17호>에 바로 이 ‘昧’자가 확인된다. 이용현은 이 목간의 목서를 ‘昧字差作之’로 읽고, 그 내용을 “형태나 내용으로 보아 물품꼬리표이다. 昧는 和의 이체자이다. 昧字差는 제작자 혹은 제작처의 이름 혹은 제작물로 추정된다. 목간은 제작된 물품에 달린 꼬리표이다. 昧는 和의 古字이지만, 한국에서는 예부터 俗字로서 음이 <화>, 훈이 <섭>이었다. 섭은 透刻하여 새김을 일컫는다.”고 설명하였다.³⁹⁾ 이 견해는 ‘昧’자를 확인하였지만, 이미 기존에도 지적하였듯이 자형 판독과 의미의 연관성을 결부시

38) 이진식, 「한국 고유 한자의 시대별 용례와 始原的 意味」, 『국문학논집』 21, 2011.



〈그림 17〉
월성해자목간
17호의 ‘咏’

키지 않은 점에서 논거가 부족하다. 월성해자 신라 〈목간17호〉의 첫 번째 글자를 ‘咏’자로 판독한다고 할 때는 그것의 문맥적 의미가 설명되어야 한다.⁴⁰⁾ 결국 〈목간17호〉의 기존 판독안이나 설명에 문제가 있다. 아래는 필자의 판독안이다.⁴¹⁾

〈목간 17호〉 부찰형. 하단 홈. 완형. 14.95×2.65×0.85cm

「咏字著作之 V」

이용현은 세 번째 글자를 잘못 읽었다. 이 글자는 ‘蓍’라고 판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기존에도 나머지 다른 글자의 판독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 세 번째 글자만은 모두 ‘蓍’로 읽었다.⁴²⁾ 이 ‘蓍’는 鳩杖을 말하며, 손잡이 꼭대기에 비둘기 모양을 새긴 지팡이를 말한다. 국가의 공신이나 원로대신으로 70세가 넘는 사람이 벼슬에서 물러날 때 임금의 하사하였던 물품이다. 비둘기는 음식을 먹어도 채하지 않으므로 채하지 말고 건강하라는 뜻에서 구장을 주었다고 한다. 《후한서(後漢書)》에 의하면 70세가 넘는 고관에게 ‘玉杖’을 주었는데, 이 옥장이 바로 비둘기를 새긴 鳩杖이라 한다. 한국에서도 『삼국사기』에 문무왕 4년 김유신에게 내린 ‘几와 杖’이 최초의 사례이지만, 월성해자 〈목간17호〉에 대한 필자의 판독이 틀리지 않았다면 6세기 후반~7세기 전반으로 鳩杖의 사여 시점이 충분히 소급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월성해자 출토 〈목간17호〉의 묵서는 “글자(字)를 새긴(咏) 蓍(鳩杖) 만들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목간의 형태로 볼 때 그 鳩杖에 매달려 있었던 꼬리표목간이었다고 생각된다. 필자의 판독과 해석이 틀리지 않았다면, ‘咏’자를 비롯해 묵서 전체의 문맥이 의미있게 된다.

- a. 咏 本朝 雕鏤謂之咏 〈古今釋林 권27 東韓譯語一字類〉
- b. 刻鏤有高深者曰禾唼刻 〈畫永篇〉
- c. 咏 【화】 幹長 唼수 ○ 기장 見經國大典 〈新字典 朝鮮俗字部〉
- d. 咏 【音禾 經國大典 唼주지장】 〈五洲衍文長箋散稿 文字東國土俗字辨證說〉

위 자료들을 통해 이 ‘咏’자는 고려를 거쳐 조선후기까지도 계속 사용된 글자이며, ‘아로새길/섭(석)’이라는 훈과 음으로 그 뜻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b와 d자료에, ‘咏’자의 음이 禾로 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문맥상 禾의 중국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c자료로 볼 때, 앞서 살펴본, 쉬, 수, 숙 등 禾의 우리 고유 훈인 곡식이나 곡식의 줄기(幹長) 등과 관련된 음이라고 생각된다. 즉 ‘咏’자의 음이 禾(쉬, 수, 숙)음과 연관되어 섭(또는 썩, 석) 등으로 읽혀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섭, 석 등은 ‘咏’자의 훈이면서 동시에 음이

39) 이용현, 「목간으로 본 신라의 문자언어 생활」, 『구결연구』 18, 2007.

40) 이진식, 「한국 고유 한자의 시대별 용례와 始原的 意味」, 『국문학논집』 21, 2011.

41) 윤선태, 「월성 해자 목간의 연구 성과와 신 출토 목간의 판독」, 『목간과 문자』 20, 2018.

42) 이기백, 「월성해자 출토 목간」, 『한국고대고문서자료집성』, 일지사, 1987, 21~22쪽.

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𪛗’자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는 종래 “𪛗刻에 의해 재료에 줄기와 빈 구멍이 생기고, 이에 따라 일정한 紋樣이 만들어 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한국 고유 한자 ‘𪛗’가 곧 ‘줄기’의 의미를 가지는 ‘禾’와 ‘구멍’의 의미를 가지는 ‘口’가 합성된 會意字임을 말하여 주는 것”이라고 본 견해가 이미 제기되어 있다.⁴³⁾ 그러나 필자는 이 ‘𪛗’자의 구성 원리를 이와는 달리 보고 있다. 이 글자의 ‘口’는 새기다, 쪼다(啄)의 뜻을 가진 의미부이며, 禾가 의미와 관계없이 아로새긴다는 뜻에 해당되는 우리 고유의 음만을 표현하기 위해 결합한 形聲字가 아닌가 생각된다. 후일 관련 자료의 증가를 기대해본다.

Ⅵ. 맺음말

본고에서는 고유한자의 범위를 좁혀 종래의 國音字, 國意字는 제외하고 國字, 즉 중국 한자와 ‘字形’에 차이가 있고 전통시대 한국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한자만을 한국의 고유한자로 새롭게 정의하였다. 한편 ‘고유한자’ 역시 그것을 ‘한자’로 명명하였다는 점에서 중국 한자의 하위 범주로 바라봐야 한다. 한국의 고유한자는 생성 당시 우리의 문화적, 언어적 특수성이 작용해 탄생한 것이 분명하지만, 대체로 우리 고유한자의 구성 원리도 『說文解字』에서 정리된 한자의 ‘六書’ 원리를 준용하여 만들어졌다. 특히 대부분 會意, 形聲의 원리가 적용되어 생성되었다.

한국 고유한자의 생성과정과 그 구성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한국 고대의 木簡과 金石文 등 當代 1차 사료에서 고유한자를 추출하고 그 양상에 주목하여 보았다.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한자를 수용 학습했던 한국 고대사회에서는 기존 한자의 뜻을 조합해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會意字 방식이 고유한자 생성에서 가장 일찍 등장하고, 가장 일반화된 구성 원리로 확인된다. 이로 인해 한자에 익숙해질수록 점점 會意의 원리를 적용해 만든 고유한자들도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우리 최초의 고유한자 사례인 ‘창고 𪛗’자도 會意의 원리로 만들어졌다고 생각된다.

삼국통일 이후 신라에서는 한자문화의 성숙과정에서 더욱 많은 고유한자들이 생성된다. 그 한 축은 최초의 ‘𪛗’과 같은 ‘𪛗’, ‘𪛗’, ‘𪛗’ 등 會意字의 증가이며, 다른 한 축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문서행정의 발달과 궤를 같이하여 合字의 書寫慣行에서 생성된 ‘𪛗’, ‘𪛗’, ‘𪛗’, ‘𪛗’ 등과 같은 고유한자들이다. 이를 통해 한국 고대 고유한자의 대부분은 會意와 合字의 원리로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會意字의 부류들은 글자의 각 변을 구성하는 두 글자가 상용어휘가 아니며, 의도적으로 글자들을 선택하여 조합했거나 글자의 일부 획을 없애는 등의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생성된 시기의 문화적 기초가 사라지면 그 글자 역시 생명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을 강하게 띠었다. 지명에 쓰였던 탓으로 ‘𪛗’는 고유명사 속에서 예외적으로 생명을 이어갔지만, 나머지 글자들 특히 ‘𪛗’, ‘𪛗’처럼 중국 한자에서 똑

43) 이진식, 앞의 논문, 2011, 353쪽.

같은 자형이 다른 뜻으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글자들은 그 쓰임새가 지속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고대나 고려를 하한으로 글자로서의 생명력이 소진되었다.

한편 습字란 “연속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한자를 수직이나 수평 방향으로 한 글자처럼 합쳐 쓴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畚’자는 ‘水+田’을 합한 글자라는 점에서 會意字의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앞의 棕, 迕, 槁, 鎬 등의 부류들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상용어휘의 합자에서 한 글자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한 글자로 변해도 그 속에 두 글자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글자의 생명력도 끊어지지 않고 현재까지 지속되었다.

끝으로 월성해자 출토 <목간17호>에서 확인되는 ‘畛’자를 묵서 내용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이 ‘畛’자가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사용되었던 ‘새길 십(석)’의 뜻을 지닌 고유한자이며, 그 생성 시점이 6세기~7세기 전반의 신라로 소급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 ‘畛’가 ‘줄기’의 의미를 가지는 ‘禾’와 ‘구멍’의 의미를 가지는 ‘口’가 합성된 會意의 원리로 생성되었다고 보는 기존 견해와 달리, 이 글자의 ‘口’는 새기다, 쪼다(啄)의 뜻을 가진 의미부이며, 禾는 의미와 관계없이 아로새긴다는 뜻에 해당되는 우리 고유의 음만을 표현하기 위해 결합시킨 形聲字가 아닐까 제안해보았다.

끝으로 출토 층위가 불안정하지만, 익산 미륵사에서 출토된 石簡 자료에 우리 고유한자가 분명한 ‘……頃下’라는 글자가 확인되어 소개하려고 한다. ‘頃’은 우리말 ‘탈나다’의 바로 그 ‘탈’을 표기하기 위해 만든 고유한자 ‘탈날 頃(탈)’이다. 이 글자는 고려시대에 분명히 1차 자료에서 보이지만, 한국 고대의 자료에서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미륵사에서 석간과 함께 출토된 다면목간들이 주로 고대사회의 서사재료로 많이 제작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아무리 늦어도 위 석간도 나말여초기에 작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발굴 상황 및 판독, 해석 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지만, 이 자료가 신라 자료가 맞다면 頃자 역시 그 생성 시점이 신라로 소급될 수 있다.



〈그림 18〉 익산 미륵사지 출토 석간의 ‘頃’

〈참고문헌〉

-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안악 제3호분 발굴보고』, 과학원출판사, 1958.
 국립경주박물관, 『문자로 본 신라』, 예맥출판사, 2002.
 국립부여박물관, 『백제 목간』, 학연문화사, 2008.
 국립부여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나무 속 암호 목간』, 예맥출판사, 2009.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고대목간』(개정판), 예맥출판사, 2006.

- 권인한, 「古代 東아시아의 畵文에 대한 一考察」, 『木簡과 文字』 14, 2015.
- 권인한, 「합자와 국자」, 『문자와 한국고대1 - 기록과 지배』(주보돈교수 정년기념논총), 주류성, 2019.
- 김중훈, 『韓國 固有漢字 研究』(개정증보판), 집문당, 1983.
- 남풍현, 「韓國의 固有漢字」, 『국어생활』 17, 1989.
- 奈良文化財研究所, 『日本古代木簡字典』(改訂新版), 八木書店, 2013.
- 노명호 외,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상)』,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노명호 외,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신라 금석문 탁본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8.
- 윤선태,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이야기』, 주류성, 2007.
- 윤선태, 「안압지 출토 『門號木簡』과 신라 동궁의 경비」, 『신라문화연구』 창간호, 2007.
- 윤선태, 「월성 해자 목간의 연구 성과와 신 출토 목간의 판독」, 『목간과 문자』 20, 2018.
- 이건식, 「한국 고유 한자의 시대별 용례와 始原的 意味」, 『국문학논집』 21, 2011.
- 이건식, 「고구려 지명 표기에 사용된 한국 고유한자의 의미와 자형 구성 방법」, 구결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2.
- 이건식, 「한국 고유한자 字形 構成 方法 연구 二題」, 『동아시아 고유한자와 사전편찬』, 단국대학교출판부, 2014.
- 이기백, 『한국고대고문서자료집성』, 일지사, 1987.
- 이문기, 「안압지 출토 목간으로 본 신라의 궁정업무 - 궁중잡역의 수행과 궁정경비 관련 목간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39, 2005.
- 이병호, 「부여 능산리 출토 목간의 성격」, 『목간과 문자』 창간호, 2008.
- 李成市, 「韓國出土의 木簡について」, 『木簡研究』 19, 1997.
- 李成市, 「古代朝鮮의 文字文化」, 『古代日本 文字の來た道』, 國立歷史民俗博物館, 2005.
- 이승재, 『木簡에 기록된 古代 韓國語』, 일조각, 2017.
- 이용현, 「목간으로 본 신라의 문자언어 생활」, 『구결연구』 18, 2007.
- 鄭燦永, 「德興里壁畫古墳의 文字について」, 『德興里高句麗壁畫古墳』, 講談社, 1986.
- 허철, 「학술용어 관점에서 ‘한국고유한자’ 명칭과 분류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한자계문자’를 제안하며」, 『동양학』 75, 동양학연구원, 2019.

* 이 논문은 2020년 5월 29일에 투고되어,
2020년 6월 25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0년 7월 13일까지 심사하고,
2020년 7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Composition Principles and Background of New Hanzi Characters Made in Korea Shown in Ancient Wooden Documents and Inscriptions

Yoon, Seon-tae*

In ancient Korean society, where Chinese characters were accepted and studied, they understood the Six principles of Chinese character formation(六書). Compound-ideograms(會意字), the method of creating new characters by combining the meanings of existing Chinese characters was found to be the earliest in the creation of unique characters and the most generalized composition principle. It is thought that our first case of unique characters, 'Warehouse 棕', was made with the same principle.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Silla produced more unique characters in the process of maturing Chinese characters. One axis is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ompound ideograms, such as 迺, 槎, and 鎰, while the other is Combining-two-letters(合字), new unique Chinese characters, such as 悞, 奮, 畠, and 仁, which were created by the calligraphy habit of combining two letters and pasting them together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document administration since the Three Kingdoms Period. This shows that most of new Hanzi characters made in ancient Korea were created from the principles of Compound-ideograms and Combining-two-letters.

Finally, through a new interpretation of the '味' found in the wooden document No. 17 excavated at the Wolseong moat in Gyeongju, it was emphasized that the letter '味' was unique character to the meaning of 'engraving 味(seop)', which was used until the Joseon Dynasty through Goryeo, and that the date of its creation could be traced back to Silla in the 6th to the early 7th century. I also suggested that the letter "口" is a semantics with the meaning of engraving and pecking, and that the letter "禾" is sound of seop. This shows that 'engraving 味(seop)' was created from the principle of Phono-semantic-compounds(形聲字).

[Key Words] New Hanzi characters made in Korea(固有漢字), Ancient Wooden documents(木簡), Six principles for Chinese Character formation(六書), Compound-ideograms(會意字), Combining-two-letters(合字), Document administration(文書行政), Phono-semantic-compounds(形聲字).

* Professor, Dongguk University